

# 허인 “디지털은 숙명... 2조 투자·4000명 인재 양성”

(KB국민은행장)

(2022년까지)

## 창립 17주년 기념 DT 선포



KB국민은행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혁신에 2조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인재도 4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1일 서울 여의도본점에서 열린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KB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선포식을 갖고 디지털 혁신 조직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허인 행장은 이날 “대형 플랫폼 기업이 은행들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전기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었듯이 디지털은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며 변화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숙명(宿命)”이라고 설명했다.

허 행장은 목표로 2025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디지털 관련 투자와 4000명의 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언 모든 업무 프로세스 재편 ‘IT 기술 혁신센터’ 신설 핀테크와 파트너십 강화

지탈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도 내놴다.

먼저 영업점 단말기 화면을 비롯한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자신의 디지털 혁신 참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디지털 지수(Digital Index)’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금융권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IT기술 혁신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 및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활동을



허인 KB국민은행장(앞줄 가운데)이 1일 서울 여의도본점에서 열린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KB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선포식을 하고 있다.

강화해 국민은행의 서비스 영토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이 동참하는 변화 혁신을 위해 다양한 변화혁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허 행장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디지털 변화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내외 디지털 선도기업을 방문하는 ‘디지털 탐험대’,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사내벤처 육성’, 디지털 전문가 양성 코스인 ‘디지털 아카데미’ 같은 다양한 활동과 연수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허 행장은 4대 추진방향에 더해 슬로건 ‘플레이 디지털(PLAY digital) KB’도 발표했다.

P는 ‘피플 오리엔티드(People-Oriented)’로 사람, 즉 고객과 직원 중심을 나타낸다. L은 디지털 변화를 리딩한다는 의미의 ‘리딩(Leading)’이며, A는 민첩하게 일하고 결정하는 디지털 조직이 일하는 방식인 ‘애자일(Agile)’을 뜻한다. 마지막 Y는 보다 젊고 혁신적으로 움직이는 KB를 상징하는 ‘영(Young)’이다.

직원들은 전국에서 생방송으로 선포식을 시청하며, 모바일 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디지털 선포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영업점 디지털 창구 확대, 인공지능 챗봇 개발, 갤럭시 KB 스타폰(KB금융폰) 출시, IT기술혁신센터 설립, 디지털 전문인력 200명 채용 등을 전형적으로 추진해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지난 31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2018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시민투자오디션’을 마치고 이상국 디지털그룹 부행장(뒷줄 오른쪽 다섯 번째)과 수상기업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회적경제기업 위한 ‘시민투자 오디션’

### IBK기업은행 투자 활성화 제고

IBK기업은행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31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2018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시민투자오디션’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오디션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기업은행 등이 후원했다. 이들 기관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디션을 개최했다.

오디션에는 총 9개 기업이 참가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크라우드펀딩 중

개 플랫폼을 통해 투자유치에 참여한 110여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 중 상위 기업이다.

오디션은 참가 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단과 일반 시민투자자 100여명이 모바일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상 기업들에게는 상금(총 790만원)과 함께 보증대출 연계지원, 기업투자정보마당에 기업정보 공개를 통한 추가 크라우드펀딩 추진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안상미 기자

## 외국환거래 위반 빈번... 영업점 전담인력 지정

### 금감원 검찰 통보건 9월까지 908건

외국환 거래법규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과 관련해 행정제재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통보한 건수는 908건이다. 이미 지난 2016년 567건을 크게 웃돌았고, 지난해 1097건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 은행의 외환 업무 처리와 고객안내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각 영업점에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자체

교육과정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환 거래고객에 대한 안내자료를 확충하고, 법규상 신고·보고의 무도 사전안내를 강화했다.

보고일이 된 고객에게는 일정 기간 전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의무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외환업무 처리 역량이 향상되고 고객 안내도 강화해 금융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도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을 수시로 파악해 제도를 고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대출 막히자 카드로... ‘빚 굴레’ 갚힌 신불자

(신용불량자)

### 금감원 은행 대출자 34% ‘다중 채무’ 신용유이자 증가세 ‘가계부실 초래’

#. 3년 전 보험영업을 시작한 이모씨(54). 당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받았던 3000만원의 대출이 있었지만, 처음하는 영업일에 자동차는 필수라 생각하고 자동차도 할부(캐피탈)로 구입했다. 그러나 최근 영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모씨는 새로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해 카드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간의 카드돌려막기는 그를 결국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대출조건의 폭이 좁아지면서 여러 금융권에서 동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카드로 이동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신용카드의 특성을 이용해 단기대출,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것. 그러나 다중채무자의 신용카드 대출은 과다 채무에 대한 최초의 행동으로, 신용유의

자(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가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신용카드의 신용유이자 증가세 대부·불법대부업 대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33.7%인 375만명이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대출자 중 은행과 보험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 대출을 동시에 받은 대출자는 74만명(전체의 58.0%)에 달했다.

그 중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을 약정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신용유자는 88만2039명으로. 2016년 85만7622명, 2017년 85만5196명에 비해 3만 여명(3.5%)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신용유자는 지난해 39만318명에서 올해 41만520명으로 2만202명 증가했다. 은행의 신용유자가 31만7721명(2017년)에서 올해 31만 7792

명으로 71명 증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유자가 14만7157명(2017년)에서 15만3727명(2018년)으로 657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큰 셈이다.

문제는 신용카드의 신용유자가 증가가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다 채무에 대한 최초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신용카드 돌려막기라고 대답한 수는 78.1%로 나타났다. 다중채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신용카드에 막바지로 몰리다 신용유자가 된다는 분석이다.

김순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카드빚 상환 등을 위해 사금융 업체를 찾은 사람의 85%이상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개인의 잘못된 소비 결정을 탓하기에 앞서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다른 선택의 경로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 자금·회계 담당자 분리하고 불시 점검



기업의 규모가 작더라도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자금과 회계, 거래의 실행과 기록 등을 한 명의 직원이 오랜 기간 혼자 담당할 경우 거래의 횡령사고가 발생해도 발견하기 힘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중소기업 경영진이 회계부정방지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내부통제 체크포인트를 이 같이 안내했다.

현금은 회사의 모든 활동에 관여되는 자산으로 유동성이 매우 높아 횡령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따라서 현금과 통장 잔고도 사전에 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횡령여부를 파악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불순한 동기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해야 한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내부관리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워 내부 횡령 등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

현금을 출금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갖춰놓는 것이 안전하다.

사전 등록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계좌를 등록한 후에 송금하거나,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송금하도록 하고 사후이라도 계좌를 반드시 등록하는 등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 회사의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최고 재무관리자(CFO)의 휴대폰에 동 내용을 문자 발송토록 조치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 삼성화재

## 생활보험 ‘안전생활 파트너’

삼성화재는 생활보험 신상품인 ‘안전생활 파트너’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전생활 파트너는 만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보장하는 생활보험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신종·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된다.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등의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김희주 기자 hj9@